## 2025 Data Structure & Algorithm I

Find the Best Subway Route in Seoul (line number 1~5)

### **Contents**

1. Data Preprocessing

2. Programming

2.1 Algorithm

2.2 Pseudo-code & Flowchart

3. Conclusion & Differentiator

역할 분담

곽용진: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, y 환승 구역 최적화, 맵 시각화

김이영: 데이터 처리(수집, 처리), 다 익스트라 알고리즘, 변형된 다익스 트라 알고리즘

### Data Preprocessing > 데이터 수집

서울교통공사\_노선별 지하철역 정보:

https://data.seoul.go.kr/dataList/OA-15442/S/1/datasetView.do

서울시 역사마스터 정보(위경도): <a href="https://data.seoul.go.kr/dataList/OA-21232/S/1/datasetView.do">https://data.seoul.go.kr/dataList/OA-21232/S/1/datasetView.do</a>

국가철도공단: 1~5호선 역간 거리(km) 정보:

https://www.data.go.kr/data/15081860/fileData.do?recommendDataYn=Y

서울교통공사: 1\_8호선 표정속도 정보, 서울 도시철도 환승 정보

총 12개의 파일 사용.

파일은 모두 cp949 encodding으로 처리함.

## **Data Preprocessing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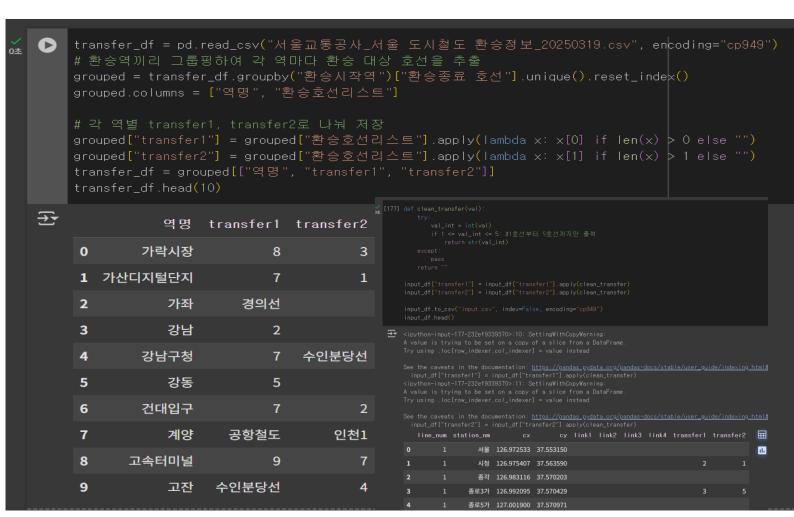
환승 정보 데이터

- 역별 환승 호선 추출

각 역마다 최대 2개의 환승 정보를

저장할 수 있도록 함

또한 1~5호선만 출력되도록 필터링



## **Data Preprocessing**

결과

line number, 역 이름, 위도, 경도,

link 1~3, transfer 1~2 로 구성됨.

(link 4는 의미 X 추후에 삭제함.)

(종로5가,1): 2.1

종로5가역 1호선 소요시간 2.1분

소요시간 계산 방법은,

remove duplicate transfer(row) return pd.Series(new\_transfers, index=["transfer1", "transfer2"]) line\_num station\_nm link1 link2 link3 link4 transfer1 transfer2 서울 126.972533 37.553150 (서울역,1):2.5 (시청,2):5.0 시청 126.975407 37.563590 (종각,1):2.3 2 (종로3가.1):1.8 (시청,1):2.3 종각 126.983116 37.570203 (종로5가,1):2.1 (종각,1):1.8 (종로3가,3):5.0 종로3가 126.992095 37.570429 (종로3가,5):5.0 종로5가 127.001900 37.570971 (동대문,1):1.8 (종로3가,1):2.1 동대문 127.011383 37.571790 (동묘앞,1):1.4 (종로5가,1):1.8 (동대문,4):5.0

시간(min) = 거리(km) / 속도(km/h) \* 60으로 계산함.

# Data Preprocessing

A	В	С	D	Е	F	G	Н	I
1 line_nu	m station_nm	сх	су	link1	link2	link3	transfer1	transfer2
2	1 가능	127.044213	37.748577	(녹양,1):1	(의정부,1):2			
3	1 가산디지털단지	126.882343	37.481072	(구로,1):2	(독산,1):2			
4	1 간석	126.694181	37.464737	(동암,1):2.8	(주안,1):2			
5	1 개봉	126.85868	37.494594	(구일,1):2.3	(오류동,1):2			
6	1 관악	126.908706	37.419232	(석수,1):2	(안양,1):2			
7	1 광명	126.884466	37.416182	(금천구청광명,1):5				
8	1 광운대	127.061835	37.623632	(월계,1):2.5	(석계,1):2			
9	1 구로	126.881966	37.503039	(신도림,1):2.5	(가산디지털단지,1):2		(구로구일,1):1	
10	1 구로구일	126.881966	37.503039	(구일,1):2			(구로,1):1	
11	1 구일	126.870793	37.496756	(구로구일,1):2	(개봉,1):2.3			
12	1 군포	126.948462	37.35356	(금정,1):2	(당정,1):2			
13	1 금정	126.943429	37.372221	(명학,1):2	(군포,1):2		(금정,4):1	
14	1 금천구청광명	126.89398	37.455626	(광명,1):5			(금천구청,1):2	
15	1 금천구청	126.89398	37.455626	(독산,1):2.8	(석수,1):2		(금천구청광명,1):2	
16	1 남영	126.9713	37.541021	(서울,1):2	(용산,1):2			
17	1 노량진	126.942454	37.514219	(용산,1):3	(대방,1):2			
18	1 녹양	127.042292	37.75938	(양주, <b>1</b> ):3.0	(가능,1):2.8			
19	1 녹천	127.051269	37.644799	(창동,1):3.2	(월계,1):2.5			
20	1 당정	126.948345	37.344285	(군포,1):2	(의왕,1):2			
21	1 대방	126.926382	37.513342	(노량진,1):2	(신길,1):1.8			
22	1 덕계	127.056486	37.818486	(덕정,1):3	(양주,1):3.7			
23	1 덕정	127.061277	37.843188	(지행,1):4	(덕계,1):3			
24	1 도봉	127.045595	37.679563	(도봉산,1):1	(방학,1):1			
25	1 도봉산	127.046222	37.689313	(망월사,1):2.8	(도봉,1):1			
26	1 도원	126.642706	37.468446	(제물포,1):1	(동인천,1):2			
27	1 도화	126.668672	37.46607	(주안,1):2.3	(제물포,1):2			
28	1 독산	126.889249	37.466613	(가산디지털단지,1):2	(금천구청,1):2.8			
29	1 동대문	127.009745	37.57142	(동묘앞,1):1.4	(종로5가,1):1.8		(동대문,4):2.7	

사용자의 출발역과 도착역을 기반으로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로 최적 경로를 탐색함.

- 1) 최단 시간 기준
- 2) 최소 환승 기준

사용한 최단 경로 알고리즘

- 1) DIjkstra 알고리즘(우선순위 Queue 기반)
- 2) Floyd-Warshall 알고리즘(전체 경로 사전 계산)

### Programming > Pseudo-code

```
모든 역의 위경도 정보 불러오기 for 각 역에 대해:
 "역명_호선번호" 형태의 노드명 생성 해당 노드의 위도, 경도 저장
```

환승 정보 불러오기 for 각 환승역에 대해: transfer1, transfer2 최대 2개의 환승 정보 추출

for 각 transfer 값에 대해: 동일 역명 + 동일 호선이면 → 제거

for 각 transfer 값에 대해: "(역명,호선):5.0" 형식으로 변환

```
그래프 초기화
graph = {}
nodes = set()

for 각 역 in 역 목록:
   for link1 ~ link4 + transfer1 ~ transfer2:
        연결 정보가 있다면:
        출발노드 → 도착노드, 가중치 = 이동 시간 저장
```

if 거리 기반 데이터가 존재한다면: 거리 / 해당 호선의 평균 속도로 이동 시간 계산 이동 시간에 60 곱해서 분 단위로 변환 graph와 edge 리스트에 추가

### Programming > Pseudo-code

```
사용자 입력 받기
start_node = 입력("출발역과 호선 입력 (예: 서울역
1)")
end_node = 입력("도착역과 호선 입력 (예: 강남역
2)")
입력값이 유효하지 않으면 다시 입력
```

if 전체 경로를 미리 계산한다면: floyd\_warshall(graph) 실행 dist 배열과 next\_node 행렬 저장

else: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경로 복원
if Floyd-Warshall 사용:
next\_node 행렬 따라 경로 복원
else 다익스트라 사용:
path\_tracker (dict) 사용해 역추적

Y자 환승 최적화 for 경로 중간 역에 대해: 동일 역명 + 반대 방향 환승이 있으면: 중간 역에서 반대 방향 환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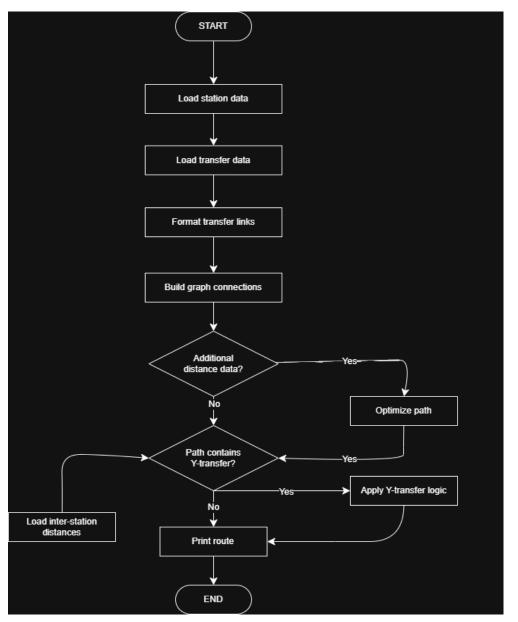
### Programming > Pseudo-code

```
출력
for 각 구간 in 최종 경로:
 역 이름과 호선 출력
 환승 발생 시점에 환승 정보 출력
 구간별 이동 시간 출력
```

folium 지도 시각화 for 각 역 in 경로: 호선마다 색상 다르게 라인 연결

프로그램 종료

#### Flow chart



(출발노드, 도착노드, 소요시간) 형태

```
[5] # df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 graph와 node, edge의 그래프를 구축
    # 파싱, 정제, 그래프화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므로 preprocessing으로 이름 지음
    # 시각화를 위해 역 이름을 key값으로 (cx, cy) 튜플을 값으로 저장하는 딕셔너리도 생성
    def preprocessing(row, col_names, graph, nodes, edges, station_coords):
       station_nm = str(row['station_nm']).strip(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# 공백, 개행, 타입 불일치 등 예방
       line_num = str(row['line_num']).strip(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# 공백, 개행, 타입 불일치 등 예방
       from_node = f"{row['station_nm']}역_{row['line_num']}"
       station_coords[from_node] = (cy, cx)
       nodes.add(from_node)
          if pd.notna(val) and val:
              for item in items:
                 to_station, to_line = left.split(',')
                 to_node = f"{to_station}옄_{to_line}'
                 if from_node not in graph:
                     graph[from_node] = []
                 graph[from_node].append((to_node, float(travel_time)))
                 edges.append((from_node, to_node, float(travel_time)))
```

최단경로 탐색 방법 1)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O((E+V)logV)

```
# 다익스트라
# 쿼리가 적을 때 유리 + 메모리 사용량이 적고 사전 계산이 필요 없음
def dijkstra(graph, start, end):
    #(누적 시간, 노드) 형태로 저장
    heap = []
    heapq.heappush(heap, (0, start))
    distances = {node: float('inf') for node in graph}
    distances[start] = 0
    prev route = {node: None for node in graph}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# 경로 복원을 위한 사전
       cost, current node = heapq.heappop(heap)
        if cost > distances[current_node]
       next_step = graph[current_node]
       for next_node, weight in graph[current_node]:
           next_distance = cost + weight
           if next_distance < distances[next_node]:</pre>
               distances[next node] = next distance
               prev_route[next_node] = current_node
               heapq.heappush(heap, (next_distance, next_node))
    return distances[end], prev_route
```

#### 최소 환승 알고리즘

heap에는 (환승횟수, 소요시간, 현재노드, 현재호선, 경로리스트) 튜플이 저장되고, 파이썬의 튜플 비교는 사전순이기에 **자동으로 환승이 적** 고 시간도 짧은 경로가 우선적으로 선택됨.

동일 노드와 호선 조합에 대해 더 나은 경로(환 승 수나 시간 적게 걸리는 경우)가 이미 존재하 면 가지 치기함.

인접한 노드가 다른 호선일 경우 환승 횟수를 증가시켜 환승 처리함.

```
↑ ↓ ♦ 🗗 🗏
```

```
# 현재가 도착역이면
if current == end_node:
    return transfer_ont, total_time, path

key = (current, cur_line)
if key in visited:
    prev_transfer, prev_time = visited[key]
    if (transfer_ont, total_time) >= (prev_transfer, prev_time): # 파이센에서 튜플끼리의 비교는 사전식 비교
    continue

visited[key] = (transfer_ont, total_time)

for neighbor, weight in graph.get(current, []):
    neighbor_line == cur_line:
        # 같은 호선 이동
        heapq.heappush(heap, (transfer_ont, total_time + weight, neighbor, cur_line, path + [neighbor]))
else:
    # 환승
        heapq.heappush(heap, (transfer_ont + 1, total_time + weight, neighbor, neighbor_line, path + [neighbor]))

return -1, -1, []
```

최단경로 탐색 방법 2) 플로이드-워셜 알고리즘 O(N^3) --> O(1)

```
[15] # 플로이드-워셜
    # 실행 할 때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계속 수행해야 함
   # 플로이드-워셜 알고리즘을 통해 미리 최단거리와 최단 경로를 파일로 저장한 후
   # 새롭게 사용할 때마다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현
   # 처음에만 O(V^3)이지만 이후의 쿼리에는 배열 인덱싱만 하면 되므로 O(1) (매우 빠름)
   #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하지만 속도가 빠름(쿼리가 많을수록 유리)
    def floyd warshall(nodes, edges):
       node_indices = {node: idx for idx, node in enumerate(nodes)}
       N = len(nodes)
       INF = float('inf')
       dist = [[INF] * N for _ in range(N)]
       for i in range(N):
       for from node, to node, weight in edges:
          i, j = node_indices[from_node], node_indices[to_node]
          next_node[i][j] = j
             for j in range(N):
                 if dist[i][j] > dist[i][k] + dist[k][j]:
                    dist[i][j] = dist[i][k] + dist[k][j]
                    next_node[i][j] = next_node[i][k]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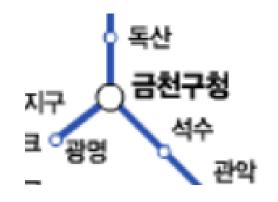
Path\_tracker가 dictionary 형식
-->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으로 간주 역추적 방식으로 거슬러 올라감.

2차원 list(next\_node) 형식
--> 플로이드-워셜 알고리즘으로 간주
index 기준 순차적 경로 구성

```
# 경로 복원하기 위한 함수
def reconstruct_path(start, end, path_tracker, nodes=None, node_indices=None):
    if isinstance(path_tracker, dict):
       # 다익스트라용 (prev_route 딕셔너리)
       node = end
           path.append(node)
           node = path_tracker[node]
       path.reverse()
       return path
        # 플로이드-워셜용 (next_node 2D 리스트)
        i = node indices[start]
       j = node_indices[end]
        if path_tracker[i][j] is None:
           return []
       path = [start]
           i = path_tracker[i][j]
           path.append(nodes[i])
        return path
```

Y자 환승 구간 최적화

문제가 발생하는 Y환승 구조를 정의하고 경로 탐색 결과에서 Y환승 구간을 탐지함. 만약 Y환승이 일어나야 하는 경로면 환승. 그렇지 않은 역이면 환승하는 시간을 제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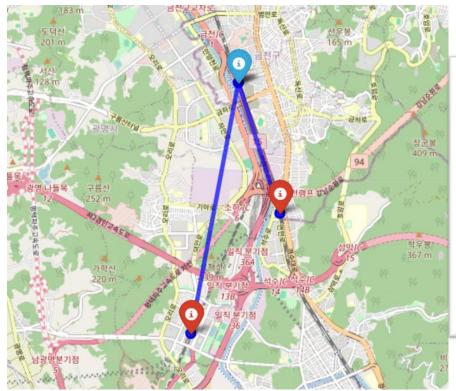


```
↑ ↓ → 🗗 🗉 🗐 🌣 🖫
```

#### Y 환승 최적화 실행

금천구청역을 예시로 들자면, 역을 2개로 나눠서 기존의 금천구청역, 그리고 새로운 임의의 역인 금천구청광명역을 생성함. 경로 복원을 통해 Y환승을 탐지하도록 로직 구성

```
['광명역_1', '금천구청광명역_1', '금천구청역_1', '석수역_1']
['광명역_1', '금천구청광명역_1', '금천구청역_1', '석수역_1']
총 소요 시간: 9분
광명역(1호선) → 금천구청역(1호선)
[금천구청역 내 분기 환승] : 2분
광명역(1호선) → 금천구청역(1호선)
금천구청역(1호선) → 석수역(1호선)
```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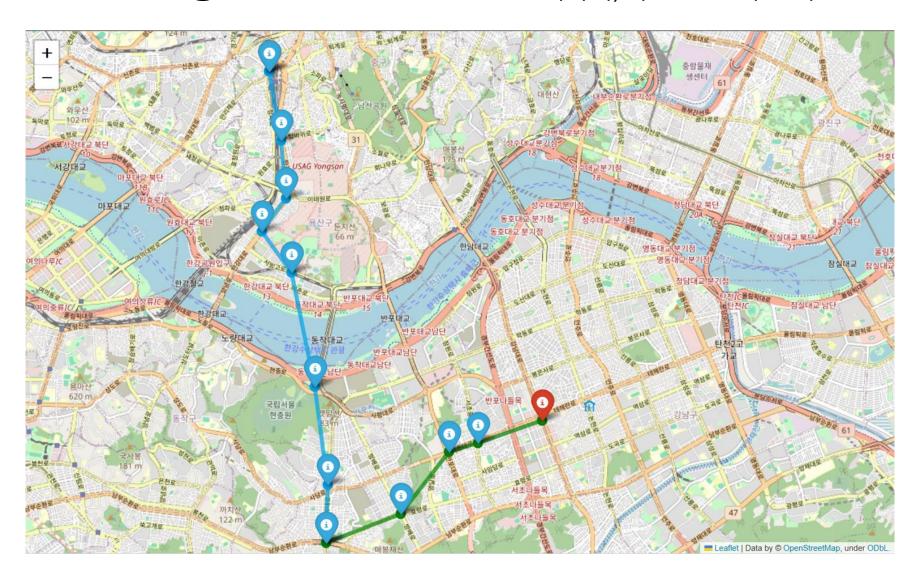
```
(z [16] start_node = get_valid_node("출발 역과 호선을 입력해주세요 (예: 서울역 1): ", nodes)
end_node = get_valid_node("도착 역과 호선을 입력해주세요 (예: 강남역 2): ", nodes)
```

```
출발 역과 호선을 입력해주세요 (예: 서울역 1):
서울역 1
도착 역과 호선을 입력해주세요 (예: 강남역 2):
강남역2
입력 형식이 잘못되었습니다. 예시처럼 '서울역 1'과 같이 입력해주세요.
도착 역과 호선을 입력해주세요 (예: 강남역 2):
강남역 2
```

다익스트라 실행 결과 출력(최단경로, 최소환승)

```
·-----최단경로-----
총 소요 시간: 25분
서울역(1호선)
[1호선에서 4호선으로 환승] : 2분 12초
13분
서울역(4호선) → 숙대입구역(4호선) → 삼각지역(4호선) → 신용산역(4호선) → 이촌역(4호선) → 동작역(4호선) → 총신대입구역(4호선) → 사당역(4호선)
[4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] : 1분
8분 48초
사당역(2호선) → 방배역(2호선) → 서초역(2호선) → 교대역(2호선) → 강남역(2호선)
환승 횟수: 2
최소 환승 경로 소요 시간: 40분 24초
서울역(1호선) → 시청역(1호선)
[1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] : 1분 24초
37분
시청역(2호선) → 을지로입구역(2호선) → 을지로3가역(2호선) → 을지로4가역(2호선) →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(2호선) → 신당역(2호선) → 상왕십리역(2호선) → 왕십리역(2호
선) → 한양대역(2호선) → 뚝섬역(2호선) → 성수역(2호선) → 건대입구역(2호선) → 구의역(2호선) → 강변역(2호선) → 잠실나루역(2호선) → 잠실역(2호선) → 잠실새내역(2호
선) → 종합운동장역(2호선) → 삼성역(2호선) → 선릉역(2호선) → 역삼역(2호선) → 강남역(2호선)
환승 횟수 : 1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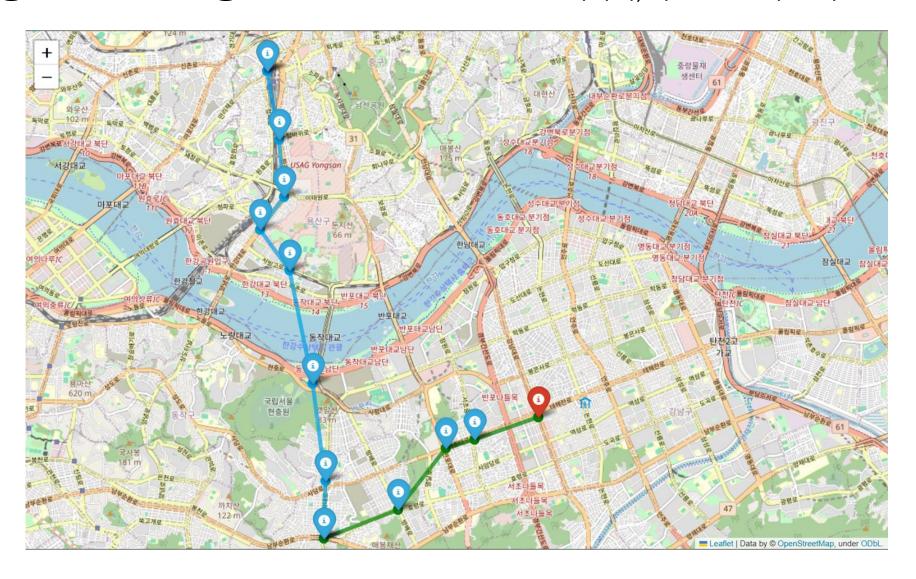
### Folium 시각화, 각 호선 별 다른 색



플로이드-워셜 실행 결과 출력(최단경로, 최소환승)

```
-----최단경로-----
총 소요 시간: 25분
-----출발------
9초
서울역(1호선)
[1호선에서 4호선으로 환승] : 2분 12초
13분
서울역(4호선) → 숙대입구역(4호선) → 삼각지역(4호선) → 신용산역(4호선) → 이촌역(4호선) → 동작역(4호선) → 총신대입구역(4호선) → 사당역(4호선)
[4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] : 1분
8분 48초
사당역(2호선) → 방배역(2호선) → 서초역(2호선) → 교대역(2호선) → 강남역(2호선)
-----도착------도
환승 횟수: 2
------최소환승------
최소 환승 경로 소요 시간: 40분 24초
서울역(1호선) → 시청역(1호선)
[1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] : 1분 24초
37분
시청역(2호선) → 을지로입구역(2호선) → 을지로3가역(2호선) → 을지로4가역(2호선) →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(2호선) → 신당역(2호선) → 상왕십리역(2호선) → 왕십리역(2호
선) → 한양대역(2호선) → 뚝섬역(2호선) → 성수역(2호선) → 건대입구역(2호선) → 구의역(2호선) → 강변역(2호선) → 잠실나루역(2호선) → 잠실역(2호선) → 잠실새내역(2호
선) → 종합운동장역(2호선) → 삼성역(2호선) → 선릉역(2호선) → 역삼역(2호선) → 강남역(2호선)
환승 횟수 : 1
```

### Folium 시각화, 각 호선 별 다른 색



플로이드-워셜 결과 저장 & 재사용

플로이드-워셜 알고리즘의 계산 결과(dist, next\_node)를 파일로 저장하고, 이후 동일한 쿼리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메모리로 불러오는 구조

연산 결과를 .npz포맷으로 저장하고, 이후 반복적인 질의 처리 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

계산 시간과 resource를 절약

```
_# 플로이드 워셜의 결과를 저장해두고 나중에 최단 경로를 필요로 할 때 load해서 사용
    next_node_array = np.array(next_node, dtype=object) # next_node에 None 값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object로 형변환
   dist array = np.array(dist)
    np.savez('floyd_warshall_save.npz', next_node=next_node_array, dist=dist_array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# 밑준비 시간 (파일 불러오기 + 인덱싱)
→ 파일 부르고 인덱싱 시간: 0.0132885650초
    def get_shortest_distance(start, end, node_indices, dist):
       i, j = node_indices[start], node_indices[end]
[44] # 지속적인 퀘리 시의 사용하는 입력받을 코드 블럭
   start_node = get_valid_node("출발 역과 호선을 입력해주세요 (예: 서울역 1): ", nodes)
   end_node = get_valid_node("도착 역과 호선을 입력해주세요 (예: 강남역 2): ", nodes)
→ 출발 역과 호선을 입력해주세요 (예: 서울역 1):
    도착 역과 호선을 입력해주세요 (예: 강남역 2):
```

```
# 플로이드-워셜 실행 시간

print(f"플로이드-워셜 실행 시간: {end_time - start_time:.10f}초")

플로이드-워셜 실행 시간: 4.0921214510초
```



다익스트라 1번 = 0.001s

플로이드-워셜 1번 = 4.0s

파일 불러오는 시간 = 0.01s

불러온 파일을 기반으로 최단거리를 계산하는 시간 = 0.0002s

### **Conclusion** & Differentiator

알고리즘 / 처리 과정	시간복잡도	공간복잡도	비고
위경도 및 환승 정보 불러	O(N)	O(N)	N: 역 개수 (단순 순회 및 병합)
오기			
그래프 구축 (링크 + 환승	O(E)	O(N + E)	E: 간선 수
정보 기반)			
Dijkstra (우선순위 큐 기반)	$O((V + E) \log$	O(V)	V: 노드 수 (역 개수), E: 간선 수
	V)		
Modified Dijkstra (최소 환	$O((V + E) \log$	O(V)	환승 수를 key로 추가 비교만 함
승 고려)	V)		
Floyd-Warshall	O(V3)	$O(V^2)$	전 정점 쌍 최단거리. 경로 추적
			위한 next_node 포함
Floyd 결과 저장 및 불러오	O(V2)	O(V2)	np.savez/ np.load처리
기			
경로 복원 (Dijkstra)	O(V)	O(V)	역추적 prev_route
경로 복원 (Floyd-Warshall)	<i>O</i> (경로 길이)	<i>O</i> (1)	next_node[i][j]를 따라가며 추적
Y환승 최적화 (경로 수정)	O(P)	<i>O</i> (1)	P: 경로 내 정점 수 (길이), 조건부
			분기 제거만 수행
지도 시각화 (folium)	O(P)	O(P)	마커 & 선 반복 출력

Dijkstra는 단일 쿼리에 빠르고 메모리 효율적

Floyd-Warshall은 다중 쿼리 시 유리하지만 초기 계산량과 공간 부담이 큼

Y환승 최적화 및 시각화는 전체 흐름상 시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.

### Conclusion & Differentiator

#### 1. Y환승 최적화 로직

서울 지하철에는 동일 역명, 동일 호선이더라도 상행-하행 간 환승이 필요한 구조가 존재함(e.g. 금천구청역, 병점역, 구로역, 강동역). 해당 문제 는 기존 알고리즘으로는 감지 불가하며, 본 시 스템은 이를 탐지 및 최적화하는 알고리즘 (y\_clear)을 독자적으로 설계함. 따라서 해당 패 턴을 사전 정의된 y\_detection사전을 통해 탐지 한 후, 중간 환승역 제거 및 직접 연결 간선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경로 최적화를 수행함.

(자세한 로직은 하단 참고)

#### 2. Floyd-Warshall 기반 이중 모드 지원

대부분의 경로 탐색은 Dijkstra 기반이지만, 본 시스템은 선계산 후반복 쿼리 대응을 위한 Floyd-Warshall 기반도 지원함. 이를 통해 수십~수백건의 경로 탐색이 반복될 때O(1) 수준의 쿼리 응답이 가능함.

즉, 단건 실시간 탐색에는 Dijkstra 기반, 대규모 반복 탐색에는 Floyd-Warshall 기반 사전 계산 방식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함.

초기 계산은 O(V^3)이지만 이후의 쿼리에는 배열 인덱싱만 하면 되므로 O(1)으로 매우 빨라짐.

메모리 사용량은 증가하지만 역과 경로 수가 많지 않으므로 많은 쿼리시 속도 측면에서 유리함.

### Conclusion & Differentiator

#### 3. 최소 환승 Dijkstra 설계

기존의 시간 기반 Dijkstra 알고리즘 외에, 환승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Modified Dijkstra를 통해 환승을 꺼리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경로 탐색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.

이 구조는 dictionary 자료형으로 visited의 key를 (노드, 호선)으로 구성하고 value를 (환승 횟수, 소요 시간)으로 구성하여 불필요한 경로 재탐색 방지를 통해 효율성을 높임.

4. 맵 시각화 (folium 기반)

텍스트 기반 경로 출력에 더해, folium 지도 시각화를 통해 출발~도착 마커, 호선 별 색상 라인을 통해 환승 시 위치 변화 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함.